2021년 8월 3일

**제주개발공사, 도내 선별진료소 및 취약계층에 제주삼다수 지원**

**- 제주공항 선별진료소 의료진에 제주삼다수 2,520병 전달**

**- 올해만 삼다수 4만 5000병 지원...도내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책임 다해**

‘도민의 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도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제주삼다수를 기부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국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제주삼다수 500mL 및 2L 총 2,520병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발열감시와 워크스루 진료소를 운영하는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공사는 같은 날 제주시 봉개동 소재 양로원에도 삼다수 지원물품 등을 전달했다. 올해 제주삼다수 무상나눔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1,302곳에 약 16만병을 전달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사는 코로나19 관련 도내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물품으로 제주삼다수 500mL 제품을 1만5000병을 지원했으며, 하절기 폭염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도 제주삼다수 그린에디션 3만여 병을 전달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제주삼다수를 지원하며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며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삼다수를 지원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주삼다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어려운 곳의 ‘생명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 전달한 제주삼다수